

지속되는 우연, 끝나지 않을 인연
'난중일기'를 읽고

윤 솔

충무공 이순신 장군, 그의 난중일기! 난중일기에 이순신 장군의 지혜로운 정신과 고귀한 위업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것은 자타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남들과는 다르게 난중일기와 쏠득한 인연을 맺고 있기에,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에서 주최하는 제 2회 난중일기 독후감 공모전에 난중일기와의 굵은 인연을 소개하려 한다.

2012년 중학교 1학년이었을 때, 나는 국어 교과서에서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와 처음 대면하였다. '역사'라는 분야를 지독히도 싫어하던 나였던지라, 국어 수업 시간에 배우는 작품이더라도 역사와 연관된 것이라면 지레 겁부터 먹고 반감을 가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난중일기는 다른 역사 작품과 달리, 매일 아침 떠오르는 따스한 햇살처럼 내게 너무도 친근하고 다정하게 다가왔다. 왜였을까? 두 해가 지난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아마도 어렵고 고단한 상황에서 일기를 쓰신 이순신장군의 강인함을 동경하고 예찬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인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난중일기에서 드러나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와 희생의 길을 걸었던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통해서 위대하고 강인하기만 한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2013년 6월, 목을 빼고 2학년 여름방학을 고대하던 때에 나는 난중일기와 두 번째로 만나게 되었다. 뉴스에서 난중일기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이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난중일기의 어떤 면에 반하게 된 것인지 궁금하여 세계에서 가치를 인정받은 기록물인 난중일기를 완독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곧바로 서해문집에서 나온 '난중일기'를 도립도서관에서 빌려 난중일기 속으로 풍덩! 빠져버렸다. 난중일기와 처음 만났을 때에는 전쟁에 대비하는 자세나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효성지극한 아들의 모습, 가족들을 사랑하는 한 가정의 모습 만이 주목했지만, 다시 만나보니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가 갈망하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로서의 모습이였다. 1592년, 왜의 수군이 총공격을 하려 하자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 앞바다에서 학익진 전법으로 수십 척의 왜적을 격파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적의 사기를 꺾고, 전라도 지방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산도 대첩이다. 이순신 장군의 굉장한 추진력과 지도력이 아니었더라면, 과연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을까?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국가에 충성하는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왜군과의 결투 때마다 언제나 목숨을 바쳤다. 그렇다면

그것이 이순신 장군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었을까? 아니다. 그것은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인 것이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동료들이 이순신 장군을 보고 그의 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 유교적인 가르침을 어릴 때부터 배웠다 하더라도 모두가 위급한 상황에서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난중일기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백성을 내팽개치고, 뒤를 보이고 도망갔던 관리가 얼마나 많았던가? 나에게 있어 리더란 타인의 모범이 되어 숭배수범하는 자여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순신 장군은 최고의 리더라고 생각된다.

인간적인 면모와 리더로서의 카리스마를 가진 이순신.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는 것은 어려운 일하기에 유네스코에서 난중일기를 세계기록유산으로 택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그가 쓴 수십 편의 일기에 빠져 읽다보니, 하루를 마치고 일기를 쓰는 이순신장군의 모습이 저절로 그려졌다. 그리고 끝이어 일기를 쓰는 나의 모습이 그와 겹쳐졌다.

나에게는 2013년 1월 21일부터 시작된 ‘좋은 습관’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이순신 장군처럼 일기를 쓰는 것이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에 침대 위에 다리를 뻗고 앉아 일기를 쓰는 일.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가 일기의 따스함에 사르르 녹아내리는 그 느낌은 일기가 아니고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기분 좋은 느낌이다. 그렇게 일기를 씌으로써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기에 내게 있어서 일기를 쓴다는 것은 ‘존재하다’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을 이순신장군 또한 익히 알고 계셨기에, 수년간에 걸쳐서 일기를 쓰셨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글을 쓰기 위해 난중일기를 세 번째로 읽었던 며칠 전, 나는 새로운 사실을 또 하나를 깨달았다. 전쟁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가족의 부고를 듣고 난 후의 슬픈 상황이더라도 그는 일기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다. 하루에 일기를 한 편 쓴다는 것은 어쩌면 위대하고 거룩한 일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일기를 통해 우리는 임진왜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세세하게 알 수 있었고, 이 기록을 통해 전 세계인이 감동을 받게 되었으니 그가 일기를 쓴 행위는 인류에게 위대하고 거룩한 것이 되는 셈이다.

이순신장군의 난중일기는 2013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고, 나는 2013년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하여 지금도 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쓸 생각이다. 2012년부터 매년 마다 난중일기와 만나고, 같은 해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만한 일이 있었다는 것. 구태여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도 난중일기와의 인연이 지속되었다는 것이 신비롭다. 나는 이순신 장군의 지혜로운 정신이 내게 흡수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그의 정신을 느끼고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더불어 난중일기와의 인연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도, 일기를 쓰며 잠에 든다.